“프랑스 거리 공연 부딪혀 보자 했죠”

오는 7월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거리 공연에 참여하는 황민형(오른쪽)·이연우씨.

연극배우 황민형·소리꾼 이연우씨 7월 아비뇽페스티벌 참여

탈 쓰고 판소리·연극 어우러진 ‘꼽추전’ 무대 예정
공연 창작소 ‘아라리연’ 창단…다양한 시도 펼칠 것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서툴기는 하지만 우리 작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설레기도 하구요.”

연극배우 황민형(28), 소리꾼 이연우(여·27), 두 명의 젊은이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오는 7월 프랑스 소도시 아비뇽에서 열리는 아비뇽페스티벌에 참여한다. 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아비뇽페스티벌은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과 함께 예술계 인사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로 꼽는 행사다. 축제 기간엔 공식 초청작과 대관 공연 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는 수많은 공연이 펼쳐진다. 전 세계 젊은 예술인들이 바로 이 거리에서 끼를 발산하며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인다. 두 사람 역시 거리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7월 13일 아비뇽으로 건너가 일주일간 머문 뒤 파리, 니스를 거쳐 25일 귀국한다. 어렵게 마련한 빠듯한 예산으로 잠자리, 먹을거리 등이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돈을 아껴 될 수 있는 한 많은 공연을 보려한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건 아니었다.

“연극 무대에 서면서 늘 꿈꿨던 게 국내외 현장에서 다양한 작품을 보는 거였어요. 아비뇽과 에딘버러는 언젠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작품 많이 보자 싶었는데, 직접 거리에서 공연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예술인들이 그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부딪쳐 보자 싶었죠.”

황 씨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가 판소리를 전공한 연우 씨다. 연인 사이이기도 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5분 분량의 작품 ‘꼽추전’은 황씨에게 익숙한 오브제인 탈을 활용하고 이 씨의 판소리가 어우러진 공연이다. 두 사람은 함께 시놉을 짰고, 이 씨가 작창을 맡았다. 영어와 불어 번역 작업도 진행중이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이라 판소리, 몸짓, 연극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대사 대신 소리와 몸으로 표현하려합니다. 젊은 청춘들이 사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부딪치는 것들을 묘사하고 싶습니다.”(황민형)

이번 아비뇽행(行)은 황씨에게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극단 ‘청춘’에서 활동했던 황씨는 올 초 청춘을 떠나 ‘공연예술창작소-아라리연’을 창단하고 작은 연습 공간도 마련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30여 작품에 출연하며 대표님과 선배들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죠. 저를 연극배우로 만들어 준 게 바로 청춘입니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예요. ‘아라리연’의 뿌리 역시 극단 청춘입니다. 하지만 극단을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만나고 다양한 배우들과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다른 환경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공부하고 여행하는 시간도 갖고 싶었구요.아비뇽뿐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해 시선도 넓히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판을 벌였으니 책임을 져야죠.”

오디션을 통해 지난 4월 광주시립극단의 ‘정율성’ 공연에 참여한 황 씨는 앞으로 ‘아라리연’을 통해 젊은 배우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곳이기도 했다. 이 씨가 ‘청춘’이 운영하는 직장인 극단 ‘우연’에 들어왔고 이후 국악 뮤지컬 ‘굿문’과 ‘소리꽃’을 함께 준비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중 2 때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이 씨는 남원예고를 거쳐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고 열정과 꿈이 있는 게 좋았어요.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모습,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무대를 즐기는 게 좋았습니다.”(이연우)

“함께 작업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바닥을 보일 때가 있죠. 연우가 나보다 어린 나이지만 감정 콘트롤도 잘 하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 보였어요.”(황민형)

황 씨는 이번에 아비뇽에서 공연한 작품을 계속 수정해 다양한 축제 현장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출발선에 섰다. 그들의 꿈을 응원한다. /김미은기자 mekim@

‘미움받을 용기’ 상반기 최다 판매
인터넷 서점 예스24 집계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일본 철학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인플루엔셜)가 올해 상반기(1월초~5월말)에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2위는 채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한빛비즈)이 차지했다. 색칠하기 책 열풍을 일으킨 ‘비밀의 정원’(클)은 3위에, ‘하버드 새벽 4시 반’(라이스메이커)과 ‘지지 않는 청춘’(조선뉴스프레스)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문학보다 인문학과 자기계발 도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예스24가 지난해 상반기에 집계한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목록과 올해 상반기 목록을 비교하면 100위권 안에 들어간 해외문학 도서 수는 지난해 20권에서 올해 7권으로 13권이 줄었다. 유아 도서도 10권에서 2권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배비장, 터미널엔 왜 가셨수?
아트컴퍼니 11일 목포터미널 시작
11월까지 광주·전남북 순회 공연

‘조선시대 양반의 배꼽 빠지는 스캔들.’

유·스퀘어문화관이 극단 ‘아트컴퍼니’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3시 목포터미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한차례씩 광주·전남북 지역 터미널 실내광장에서 조선시대 좌충우돌 코미디 창극 ‘배비장전’을 선보인다. 7월2일 순천터미널, 8월20일 해남터미널, 9월3일 전주터미널, 10월8일 여수터미널, 11월12일 유·스퀘어문화관 1층 실내광장.

풍자문학의 걸작인 배비장전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전소설로, 죽은 아내를 위해 지조를 지키려던 배비장이 제주 기생 애랑에게 빠져 망신을 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극 ‘배비장전’의 시공간적 배경은 조선시대 그대로이지만 특유의 사설조와 고어체들은 관객의 입맛에 맞도록 재탄생됐다. 여기에 배우들의 슬랩스틱 연기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더해졌다.

문의 062-360-84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디, 전통문화관엔 무슨 일로?
문화체험 ‘풍류노리’ 인기…작년 외국인 등 1870여명 참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풍류노리’가 외국인 및 관광객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풍류노리는 전통음식, 국악기, 다도, 전통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외국인 및 관광객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관이 개관한 2012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풍류노리’는 지난 2012년 총 18회 716명, 2013년 총 32회 955명, 지난해에는 총 50회 1871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등 운영 횟수와 참여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도 ‘풍류노리’는 ▲액세서리·부채 등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공예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배우고 장단에 맞춰 민요를 배우는 국악기 ▲우리 차를 달이고 마시는 예법을 배우는 다도 ▲사자춤놀이·농심줄꼬기 등 민속놀이 ▲흥겨운 장단·추임새를 배우는 전통탈춤 ▲한복을 입어보고, 절하는 예절을 배우는 한복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통음악의 깊고 멋스러운 가락을 경험하는 전통공연 ▲남도음식 명인에게 전통음식을 배우는 전통음식체험 등 8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체험비용은 14만원이며 별도의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062-232-150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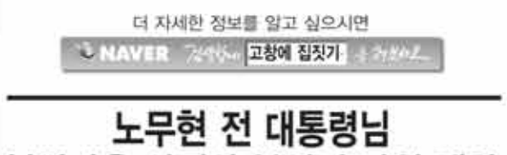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85cm×세로 51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